

아내구타와 그 가해자 - 구타과정 및 가해자의 심리·행동적 특징 -

김 정 인[†]
서비스 테크

김 시 엽
경기대학교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고에서는 아내 구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전개과정과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외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고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구타의 실상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두 번째는 구타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가해자들의 유형 및 심리·행동적 특징들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실상 부분에서는 우리의 폭력실태가 외국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심각성도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가정 폭력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3단계 모델에서 보다 세분화된 내용으로 구타과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구타의 결과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 중 특히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심리·행동적 특징부분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가해자와 관련된 핵심특성에 중점을 두어서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이어서 맺음말에서는 구타예방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아내구타, 가정폭력, 스토킹, 폭력

[†] 교신저자 : 김정인, 서비스테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0-7 인사관리회관 3층 서비스테크
E-mail : kji820@hanmail.net

아내구타에 대한 실상과 전개과정

아내구타의 실태와 문제

최근 들어 아내 폭행과 관련해서 폭행당한 아내가 숨지거나 혹은 아내와 자식에게 폭행을 가해왔던 아버지를 살해하는 등의 비극적 사건들이 보도되고 또한 여자 연예인이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사건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내 구타(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모든 여성의 20-30%가 평생 적어도 한 번은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하며(Fricze & Brown, 1989), 영국의 경우 16세부터 59세인 6,000명의 여성과 5,000명의 남성을 대표표본으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여성의 22.7%가 살아오면서 파트너나 혹은 옛 파트너에 의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더욱이 여성 표본의 4.2%는 전년도에도 폭행을 당하였다(Mirrlees-Black, 1999). 캐나다에서 1993년도 실시된 여성폭력에 대한 서베이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행의 29%만이 경찰에 신고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5년간 계속된 서베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Pottie-Bunge, & Locke, 2000).

그러나 이러한 가정 폭력은 잘 탐지되지 않는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신고율이 극히 낮으며 사건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기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신고율은 실제 사건발생율의 50%미만이라고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Browne, 1992).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1992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45.8%였고,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아내는 2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익기, 심영희, 박선미, 김혜선, 1992).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재엽(1999)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율은 34.1%로서 부부 10쌍 중 3쌍이 한 해 동안 1회 이상의 상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는 2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와 상호구타는 각각 17.7%와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폭력에 대한 피해양상은 남녀에 따라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배우자 폭력(즉, 배우자나 이전의 배우자, 여자/남자 친구, 이전의 여자/남자 친구)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29%에 해당하지만, 남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단 4%에만 해당할 뿐이다(Dawson & Langan, 1994). 대조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의한 폭력의 희생은 여성(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23%; Buchman & Saltzman, 1995)보다는 남성(남성에 대한 전체 폭력의 49%)에게 위협의 양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 폭력의 희생자는 여성일 가능성이 더 많은 반면(Bachman, 1994; Fagan & Browne, 1994), 다른 형태의 폭력의 희생자는 남성일 가능성이 더 많다(Perkins & Klaus, 1994). 아울러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주로 아는 사람 즉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폭력실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기에 일부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온 이후에 최근 들어 아내구타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구타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새로운 연구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아내

구타의 진행과정과 구타자의 심리적 및 행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내구타에 대한 정의 및 특징

가정폭력은 가족 내에서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실질적 혹은 위협에 의한 심리적,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으로 간주된다. 가정폭력과 달리, 가정폭력은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 이혼, 별거, 과거 사실혼 관계, 데이트 중인 관계 등을 포함하는 사적인 관계에서 가해지는 모든 폭력으로 규정된다. Wallace와 Seymour (2001)에 따르면 가정 폭력 혹은 가족폭력이란 “한 집에서 거주하는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폭행, 구타를 가하는 것과, 자원에 대한 접근과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외부세계와 고립시킴으로써 육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일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혹은 가족폭력 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을 아내구타, 아내학대, 아내폭행 등의 용어로도 사용한다. 남성과 여성간의 폭력을 기술하기 위하여 구타(batteri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타는 신체적 공격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예측시키며, 지배하기 위해서 신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에 대한 위협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Jacobson, Gottman, & Short, 1995; Kaufman, 1992).

가정폭력은 종종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다. 다른 폭력이라 함은 주로 스토킹과 아내강간을 들 수 있다. 스토킹이란 특정인을 목표로 가해지는 행동으로서 반복된 시각적 혹은 물리적 인접성, 비-동의 의사소통, 언어, 문자 혹은 암시적 협박, 혹은 공갈과 같은 행

위로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은 신체위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Jones(1996)는 캐나다에서 스토킹 피해자 7,47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80%는 여성이었고, 대다수는 전배우자(33%), 혹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14%)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20%) 등에 의해서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Tjaden과 Thoennes(1997)의 조사에서도 남편 혹은 동거 파트너에 의해서 스토킹을 당하는 여성들의 81%는 동일인물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31%는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스토킹은 가정폭력 주기의 핵심요소로도 간주될 수 있다(Coleman, 1997).

한편 아내 구타는 상당 부분 아내 강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성적 및 성적 부부 폭행의 공발생률에 관한 자료들은 대체로 매 맞는 여성들이 몸을 숨긴 피난처에서의 연구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그 당시 비성적 학대 즉 신체적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였던 여성들의 33%에서 59%가 부부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고하였다(Bowker, 1983; Campbell, 1989; Frieze, 1983; Pagelow, 1984; Hanneke, Shields & McCall, 1986; Walker, 1984).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일반화하는데 대한 제한점이 주목을 받아왔는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타를 당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 여성의 1%에서 10%가 부부 강간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예, Finkelhor & Yllo, 1985; Russell, 1990). 즉 아내 강간은 구타가 동반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도 있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아내 강간 및 구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심영희(1990)의 연구결

과를 보면 결혼 혹은 동거경험이 있는 아내 강간의 비율은 14.5%로 나타났고,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30.9% 그리고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38.9%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우리 사회나 혹은 가정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상은 외국의 사례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내구타의 전개과정

구타의 단계

아내 구타 행동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부인에게 폭력을 3회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전체 조사 가구 중 14.3%였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몽둥이로 때리기, 닥치는 대로 때리기, 흉기로 위협하기, 흉기 사용 등 심각한 폭력이 일년 동안 단 1회라도 발생하면 학대성 폭력이라고 간주하는데 (Straus, 1983), 이러한 학대성 폭력이 발생한 가구는 전체의 10.6%였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학대성 폭력을 사용한 경우도 4.1%에 육박하였다(김익기 등, 1992).

Dutton(1988)은 경찰에 보고된 아내 구타 사건들 중 2/3는 단기간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7% 정도는 심각한 폭력으로 반복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추정치는 아내 구타의 반복성을 시사하며 구타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폭력의 정도도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또한 Dutton(1985)은 형사 기소된 아내구타 사건들의 재범률은 30%라고 주장하였고, Hamberger와 Hasting(1990)은 아내 구타로 인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범률은 28%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아내구타 중 일부는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 강도는 갈수록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alker(1984)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대 및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특징적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긴장형성(tension building)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갈등과 분노, 위협, 소수의 신체적 공격 등과 같은 발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된다. 이때 피해자인 여성들은 두려움, 분노, 거부, 학대의 합리화 및 가해자를 달래고 진정시키려는 노력 등의 감정과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어서 두 번째로 모진 폭력(acute violence)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지속 기간은 부부마다 다르고, 이 단계에서 여성들은 전형적으로 무력함과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피해자들은 종종 폭력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대신 구타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마지막은 밀월(honeymoon) 단계로서 학대자들은 사과하고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나타내며, 아주 사랑스럽게 변하고 다시는 구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자신들이 당한 학대의 심각성과 구타의 재발 가능성을 부정한다. 아울러 밀월 단계는 여성들에게는 인내에 대한 보상의 시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내를 통제하기 위한 폭력의 사용은 가해자들의 경우 이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습관으로 굳어지고 계속되게 된다.

Woffordt, Mihalic 및 Menard(1994)에 의하면, 구타의 순환은 갈등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습관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구타가 습관화된 일부 남성들은 구타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가 곧 배우자를 비난하고(Walker, 1984), 일부는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통제와 학대를 계속하게 된다(Gondolf, 1988; Staunders, 1992). 폭력적인 파트너는 폭력 관계의 시작부터 신체적 폭행을 일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여성들을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여성은 자신의 자존감, 자기-가치 및 자신감이 심각하게 훼손당한다. 공격자들은 변태적인 행동을 통하여, 완력행사와 지배를 통한 끊임 없는 조건화과정으로 피해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 피해자들은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움썅달썅 못하게 된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울가미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다. Hirigoyen(2000)에 따르면, 이와 같이 계속되는 심리적 의존상태는 점진적 침식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단계에서 여성들은 두려움을 느끼나 대항할 수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하며 공격자의 눈과 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금상태로 인해서 여성들은 상황개선에 대한 어떠한 시도 없이 인내만을 하게 된다(Herman, 1992).

여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구타에 시달릴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여성들의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보복위험의 두려움, 남편이 변하겠다고 한 약속에 근거한 희망, 폭력을 신고하는데 대한 수치심, 도움을 주는 전문의나 중요한 다른 사람들의 회피나 희생자를 비난하는 태도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Carden, 1994). 결국 이들 요소에 의해서 폭력의 심각성 내지는 재발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타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특성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

황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상습구타 전개과정

가정 폭력은 피해자를 해치거나 혹은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가해자의 목적은 여성이 복종적 역할을 유지하도록 그녀에게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Crowell & Burgess, 1996; Yllo & Bograd, 1988). 가정폭력은 몇 가지 연속적인 국면을 이루는 복잡한 현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정 폭력은 주기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빈도도 높아지는 연속된 행위이거나 범죄이다. 시작단계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겪는 폭력을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폭력주기의 각 단계는 종종 인식하지 못하며, 때에 따라서 그들은 그 문제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폭력적인 파트너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다(Straus & Gelles, 1990; Walker, 1979).

앞서 3단계로 제시된 폭력의 주기는 보다 자세하게 확대된 7단계를 통해서 기술될 수 있다. 즉 통상적으로 겁주기, 고립, 비판, 격리, 신체 및 성적 공격, 잘못된 화해, 아동을 이용한 공갈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겁주기(intimidation) 단계는 남자가 여자를 끊임없이 두려운 상태에 빠지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강압적 요구, 경제적 통제, 협박, 소리 지르기, 공갈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해자는 여자가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녀가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 그리고 그녀가 가는 장소도 통제한다. 이들 모든 행동들은 종종 질투와 혼동되고, 남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사랑표현의 극단적 형태로 정당화하려는 경향마저 있다. 남자들은 그들의 우정, 이해관계 및 심지어 자신의 직장을 포기

함으로써 자신의 파트너에게 계속해서 그녀의 사랑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다음 단계, 즉 고립을 이끈다.

고립단계에서 여성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종종 배제되고 정보도 차단된다. 남자는 여성을 노예처럼 예속시키며, 그녀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녀를 정서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학대하기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 여성이 말하거나 행하는 그 무엇이든지 남자의 관점에서 틀린 것으로 간주된다. 여자는 남자의 비판으로 인하여 무가치감과 함께 학습된 무기력을 발달시킨다. 여자가 그 일을 중지시키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자신을 변호라도 하려 하면, 남자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먼저 물건을 부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이때 그들은 애완동물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한편 여성에 대해서도 그들은 폭언을 가하고, 밀치고, 발로차고, 가격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살해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가정 폭력의 경우에 여성들은 강압적 성관계도 강요당한다. 이때 여성들이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거부했을 때 당하게 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그가 진정할 것이라는 바람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여성들은 만약 그들이 파트너의 요구에 응종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남편의 요구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문화적으로 조건화되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Bergen, 1995, 1996).

폭력은 항상 소위 잘못된 화해라고 부르는 행위들을 수반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마치 사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듯이 행동하며,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동안에 폭력적인 남편은 여성의 신념을 되찾아주려는 행동에 개입한다. 그는 아내에게 선물도 주고 꽃도 주며, 일상에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행동한다. 그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가사에 협력한다. 이것은 남편의 명백한 변화를 믿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그 이유는 적어도 여성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포기한다거나 가정을 “파괴”하기란 어려우며,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Sipe & Hall,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인정하는 것은 가족이 이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곧이어, 여성이 남자의 통제 하에 다시 놓이게 되면, 폭력의 주기는 다시 시작되고, 심리적 정서적 학대는 여성을 더욱 더 옹아맨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남자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데 대해 비난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믿게끔 만든다. 결국 남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녀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질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이유를 대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 한다. 다른 경우에, 학대자는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혹은 좌절감 때문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한다.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이들 남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고 여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복수심에 불탔기 때문에 자신을 폭력남편으로 매도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니면 학대자들은 자신들의 폭력이 이성적 통제를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들은 이러한 통념을 반박하고 있으며, 폭력의 사전모의 양상을 예시하고 있다. 학대자들은 상처가 드러나지 않는 부위(복부 혹은 머리)에 한

정지어 구타하며, 폭력사건도 주로 남에게 잘 들키지 않는 가정 내에서만 일어난다(Walker, 1984).

주기의 또 다른 단계는 아동에 대한 공감이다. 즉 학대자는 자신의 아내가 그를 떠나고자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특히 폭력이 아동에게도 가해졌을 경우 이를 이용한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여성에게 관련 복지 서비스단체에 보고해서 아동에 대한 그녀의 양육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한다. 자신의 권리를 항상 인식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종종 투쟁(가해자와의 싸움)을 멈추고 폭력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가해자에게 굴복한다.

아내구타의 결과

구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성에 대한 남편 혹은 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한 전형적인 건강상의 고통 및 신체적 상해는 두통, 위장장애 문제, 타박상, 눈에 멍이 들, 뇌진탕, 골절, 유산에서부터 등과 사지의 손상, 청력 및 시력의 상실, 화상, 자상 등과 같은 영구 상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Brown, 1993; Follingstad, Brennan, Hause, Polek, & Rutledge, 1991). 특정 시점에서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들의 40%는 아내 학대의 희생자들이었고, 여성들 중 10%는 파트너에 의한 반복된 폭행 때문에 응급실 의사들에게 계속해서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tark & Flitcraft, 1988). 부부 치료를 받고자 했던 표본에서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들의 약 13%는 코가 부러지고, 이가 나가거나 감각기관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Cascardi, Langhinrichsen, &

Vivian., 1992).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폭력의 대상에 임신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전국적인 가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Gelles(1988)는 임신한 여성의 15%가 임신 첫 4개월 동안에 폭행을 당했고, 17%는 15주에서 9개월 사이에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해자의 폭력양상은 피해자의 현황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 폭행이 폭행의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우선 직접적 피해자인 여성들의 경우 우울증, 무력감, 고독 등의 심리적 고통(Zlotnick, Kohn, Peterson, & Pearlstein, 1998)과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간접적으로는 폭행을 목격하는 자녀들의 우울증,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야기하며(Haj-Yahia, 2001), 부부간 폭력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Gil, 1971). 더욱 심각한 것은 부부 폭력의 종착지는 살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살인사건에 관한 자료에서는 미국에서 살해된 여성의 61%는 남자 파트너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고, 반면에 남자들의 39%는 여자 파트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들은 다른 모든 유형의 남자들보다도 남자 파트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rowne & Williams, 1993)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남성들이 행하는 폭력의 중요한 간접적 결과 중 하나는 학대를 목격했거나 경험했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자녀에 대한 폭력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명(엄마)이 학대를 당하면 다른 쪽(아이들)도 그럴 확률이 높다. 자녀가 직접 학대를 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것 보다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는 것이 더 예후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한 남자아이들은 비학대 혹은 비구타 가정의 아이들보다 성인이 되어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Kolbo, Blakely 및 Engleman(1996)과 이어서 Edleson(1999)은 가정 폭력이 이에 노출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가정 폭력에 노출된 소년들은 비학대 소년들에 비해서 학교에서 자신들의 또래들에 대해서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다(소위 외면화된 행동). 이에 반해 소녀들은 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복종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집단 따돌림(bullying)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았다(내면화된 행동 Millender & Morley, 1994). Lane(1989)에 따르면,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어떠한 통제력과 권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소외되고 거부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학교에서 이 아이들은 통제를 위하여 그리고 괴롭히기 위하여 약자로 지각된 어느 누군가를 찾는다. 학교에서 친화육구는 주로 여학생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며 권력과 통제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육구는 남자 아이들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가정 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장단기적인

부정적 결과로는 공격적 행동 혹은 철회행동의 발달, 부적응, 우울증, 불안, 정신·신체적 증상 혹은 심지어 자살시도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Kolbo, Blakely & Engleman, 1996; Barnett, Miller-Perrin, Perrin, 1997). 또한 가정에서의 배우자 폭력은 자녀의 일반적인 정신·병리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McCloskey, Figueredo, & Koss, 1995). 우리가 우려해야할 문제는 부모나 형제의 온정만으로는 배우자의 폭력이 아이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폭력이 아이들을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지 않아도 아이들 역시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미국 심리학회(1996)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은 학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들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단기 및 장기 결과는 세대간 및 세대내 폭력의 주기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초기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전이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이다. Widom(1989)이 실시한 고찰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인의 70% 가까이가 아동 학대의 가계사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도 자주 목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범죄자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연구에서는 이들 중 약 30%가 폭력적인 가족 내에서 성장했음을 지적하였다. 전향적 연구에서는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직접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약 15%가 비행청소년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가정 폭력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나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발달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아내구타 가해자 유형 및 특징

아내구타 가해자 유형론

Gondolf(1988)는 가해자의 행동을 기초로 유형을 나누었다. 쉽터에 들어온 6천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폭행 후 행동, 약물 남용, 일반적 폭력, 전과 기록 등을 조사하여 사회병질적 아내구타자, 반사회적 아내구타자, 전형적 아내구타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Dutton(1997)은 배우자 학대를 하는 남성들은 그 특징에 따라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적 성격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부 폭력분야에서의 유형론 연구는 일반적으로 구타자의 성격특성과 병리(예, Gondolf, 1988; Hamberger & Hastings, 1986; Vivian & Langhinrichsen-Rohling, 1994) 뿐만 아니라 구타자 폭력의 특성, 즉 부부 폭력의 심각성과 부부 관계 내에서 및 밖에서의 폭력의 일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실증적 및 연역적으로 파생된 구타자 유형론 연구에 근거해서, Holtzworth-Munroe 및 Stuart(1994)는 세 가지 주요 구타자 유형을 묘사한 잘 구성된 유형론을 제안하였다. 즉 가족만 구타하는 유형, 정신불안(dysphoric)/경계선 유형, 그리고 일반적으로 폭력적/반사회적 구타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 내에서만 구타하는 형(family-only batterers)은 가장 일반적인 형으로 폭력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이들의 폭력은 주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 문제와도 관련이 매우 적다. 이들에게서는 정신병리 혹은 성격 장애에 대한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갈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타행위에 대해 후회나 수치감을 느낄 확률이 가장 높다. 가족 내에서만 구타하는 집단에 속한 부부들은 빈약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기술로 인해, 언어적 갈등과 신체적 공격이 점점 심화되는 악순환에 연루되기 쉽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아내들은 부부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고 신체적 위험수위도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반격할” 가능성이 많다.

정신불안 / 경계선 구타자(dysphoric / borderline batterers)은 가장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디스트레스를 겪을 것으로 가정되며, 정서적으로 흥분하기 쉬운 유형으로 본다. 경계선 혹은 정신분열적 성격특성을 보이고, 게다가 약물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Saunders, 1992; Gondolf, 1988)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정서적으로 더욱 불안정하고 주로 가족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만 가끔은 가족 외에 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신의 아내에 대해 극도로 몰두하고 의존하며, 질투심도 매우 강하다. 또한 이들은 결혼생활의 불만,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애증의 양면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한 소유욕, 질투, 투신, 통제, 거부, 자포자기, 곤경, 열등한 개별화 등과 같은 관계상의 문제들은 정신불안/경계선 유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Bartle & Rosen, 1994; Ferraro, 1988; Lloyd, 1996; Mones & Panitz, 1994). 이러한 관계는 아내들이 벗어

나기가 가장 어렵고 스토킹이나 다른 형태의 감시와 여성 행동에 대한 통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구타자(generally violent batterers)는 가장 폭력적이며, 아내를 물건 혹은 대상(object)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후회를 느낄 가능성은 가장 적고, 구타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와 대인 폭력의 사용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정 밖에서 범죄적 폭력을 저지르며,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출신 가족에게서 폭력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폭력적인 구타자 집단은 전반적으로 충동성, 예측불허, 변덕, 극도의 억압, 비인간화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관계의 아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많으며, 가장 공포에 질려있으며, 외상도 크고 저항하기를 겁낸다(Walker, 1984).

한편 Holtzworth-Munroe와 Stuart(1994)는 구타자들이 표집된 상황이 각기 다름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편파를 고려하여, 부부 폭력의 약 50%가 가족 내에서만 구타하는 형만으로 분류될 수 있고, 정신불안(dysphoric)/경계선 구타자는 25%로 그리고 일반적인 폭력/반사회적 구타자는 25%로 분류된다고 예측하였다.

가해자의 심리·행동적 특징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해 남성이 자행하는 폭력은 여성에 대한 복종적인 사회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통제라고 여겨졌다. 일반적으로 페미

니스트들은 개인의 생물학이나 병리학이 아닌 남성폭력의 사회구조를 강조하였다(Heiss, & Russo, 1994; Kelly, 1988). 사회적 상황은 직장이나 가정, 지역 사회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의 사용을 형성하고, 장려하며, 조장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제도는 여성들의 폭력 경험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구조 그 자체는 남성 폭력의 합법화를 유지하는데 일조하는 불공정한 남녀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표준이고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가부장적 세계관을 강화하게 된다.

Russo와 Green(1993)은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을 포함한 성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은 개인적 기질이라기보다는 성역할의 반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폭력은 종종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진다. 강인함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사회일수록 강간이나 대인간 폭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Sanday, 1981). 이것은 강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태도가 만연될 경우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행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남성을 이성적이고, 공격적이며 우세하다고 여기며, 여성을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순응적이며, 의존적이라고 보는 경직된 성역할 고정 관념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구타와 관련된 또 하나의 상황적 요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역할 차별은 구타와 폭력의 사용을 같거나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용인하도록 한다(Carden, 1994; Harway & Hansen, 1993). 이상에서 보듯이 아내 구타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나 특정 사회 혹은 문화가 표방하는 가치나 신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동적 특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력과 통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권력과 강압적 통제의 개념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설명하고 있다(Gelles & Straus, 1989). 권력은 기능상 성역할의 가치를 표현하고 남성 성역할 정체성 확립 혹은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려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O'Neil & Egan, 199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의 사용은 성역할 가치와 속성에 근거한 남성의 자아나 개인적인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통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규제하고 제약하며 사람들이나 상황을 그의 지배권 내에 두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권력과 통제의 상실을 그들의 남성 성역할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권력과 통제의 상실은 남성성의 상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은 상실감을 조작이나 공격성, 학대, 심지어 폭력 등을 통해서 보상받으려 하기도 한다(Kahn, 1984). 즉 남성들이 권력을 상실할 때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하여 학대나 폭력(강압적 권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타가 상대방에게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려는 남성들의 요구와 욕망에서 발생한다는 개념을 뒷받침할 만한 일단의 개인적·인간관계 요인들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Gelles, 1974; Hornung, McCullough, & Sugimoto, 1981; O'Brien, 1971)이 지위의 불안정이나 상반성이 구타와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상대방보다 학식이나 성취도, 수입이 낮은 남성들(지위

의 상반성)은 구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유사하게, 자신의 학벌에 비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낮은 직업적 성취도나 수입을 가진 남성들(지위의 불안정성)도 또한 구타할 가능성이 많다.

성역할 갈등과 남녀 불평등 의식

성역할 갈등은 경직되고, 성차별적이거나 혹은 제약된 성역할이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 대한 제약과 비하, 침해를 야기할 때 일어난다(O'Neil, 1990; O'Neil, Good, & Holmes, 1995;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성역할 갈등은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사회화된 성역할에 의해 일어나는 인지적 · 정서적 · 무의식적 혹은 행동상의 문제들을 포함한다(O'Neil et al., 1986).

대부분의 남성들은 타인이 그들의 남성성을 의심할 때 성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성역할 갈등은 여성에 대한 적대감(Chartier, Graff, & Arnold, 1986),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Ducat, 1994; Rounds, 1994), 성적 공격성(Kaplan, O'Neil, & Owen, 1993; Rando, Brittan, & Pannu, 1994), 성희롱(Jacobs, 1996)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폭력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게 나타난 태도로는 가부장적인 의식, 여성에 대한 적대감, 갈등 해결을 위한 폭력 사용의 정당화 등을 들 수 있다. 경직된 성역할 태도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Saunders, 1993).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을 수용하고 있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자기 배우자와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더 허용적이고, 배우자에게 분노, 질투심을 등을 더 많이 표현한다(Eisler, Franchina, Moore, Honeycutt, & Rhatigan, 2000).

배우자를 학대하는 남성은 배우자에 대한 의존적 욕구에서 오는 수치심, 배우자에게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을 분노와 폭력으로 배우자에게 나타냄으로써 남성다움을 확인하려고 한다(Jennings & Murphy, 2000). 또한 이들은 배우자가 자신을 버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고, 질투심을 느끼고, 배우자를 비하하고 술의 힘을 빌려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많은 폭행 남편들이 성역할 고정관점을 가지고 있고, 결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enman & O'Leary, 1981; Whitehurst, 1974). 남녀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부관계에 대한 평등의식이 낮은 남성들일수록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불만이 클 수 있고 폭력으로 이를 제압하고자 할 수 있다.

가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남성은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서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Goldstein, 1986).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해 고정된 편견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남성일수록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아내의 반박하는 말은 대화가 아니라,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남편들의 의식 속에는 부부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위에 군림하는 수직적 관계이며, 무조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아내와는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

고 있다.

개인의 경험과 행동특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해 밝혀낸 연구의 결과는 구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다(Caesar, 1988; Gelles, 1974; Kalmuss, 1984; Okun, 1986; Rosenbaum & O'Leary, 1981; Walker, 1979). 그러나 어린 시절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목격하지 않은 남성들보다 어른이 되었을 때 구타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risso, 1981; Caesar, 1988; Gelles & Straus, 1988; Okun, 1986; Rosenbaum & O'Leary, 1981)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는 남편들은 원가족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학대 및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 간에 행사하는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전춘애, 1989; Hotaling & Sugarman, 1986; Kalmuss, 1984). 한국에서도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증명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김갑숙, 1991; 박경규, 199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남성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폭력적일 가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Huesmann과 그의 동료들(Huesmann, Eron, Lefwitz & Walder, 1984)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성은 세대간에 전승된다고 한다. 그들은 아동들이 부모간의 폭력뿐 아니라 공격적인 대화를 관찰하고 폭력을 목인 또는 허용하는 문화에서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부부간의 공격성

을 학습한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

김영기, 이죽내(1995)의 연구에서는 폭력가정 출신의 남편들은 결혼 전부터 아내를 구타한 경우가 훨씬 많았고, 폭력이 결혼 초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폭력의 정도에 있어서도 폭력 가정 출신의 남편들은 더 오랜 시간동안(30분 이상, 심지어 3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구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행위도 폭력가정 출신이냐의 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비폭력가정 출신의 남편들은 발로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이 많은 반면, 폭력가정 출신의 남편들은 칼,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 가정 출신 남편들은 아내구타 후 과잉 친절을 보이고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이중적인 성격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성장기에 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이 가하는 아내에 대한 폭력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tith 등(Stith, Rosen, Middleton, Bursch, Lundeberg, & Carlton, 2000)이 행한 메타분석 결과 원가족 폭력의 결과는 성별간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여성들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아동들이 주로 같은 성을 가진 부모를 모델링한다는 측면에서 설명 가능한 결과일 것이다. 즉 소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가해자의 역할을 배우고 소녀들은 어머니를 보면서 피해자의 역할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받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을 관찰한 경험이 성장 후 결혼 관계에서 아내에 대한 신체적, 상징적 그리고 성적 폭력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고 있다고 보고된다(박경규, 1994; Dibble & Straus, 1990).

또한 많은 연구조사에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공격하는 남성들에게서 정신 병리학적·인격적 장애(대부분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높게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Dutton, 1994, 1995; Dutton & Starzomski, 1993; Dutton, Saunders, Starzomski, & Bartholomew, 1994; Hamberger & Hastings, 1986; 1988, 1991; Hart, Dutton, & Newlov, 1993). Gondolf와 White(2001)는 대다수의 가해 남편들이 정신병적 경향을 가졌을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아무런 정신적 문제를 가지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며,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사람들의 11%정도만이 전형적인 정신병적 증세를 가지므로 이러한 결과가 과잉 일반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구타자에 대한 좀더 개별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구타자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Rosenbaum & O'Leary, 1981). 학대적인 남성들은 자신의 희망과 요구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성숙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Maiuro, Cahn, & Vitaliano, 1986). 자신감이나 언어적 표현력의 부족과 불충분한 문제해결 능력이 갈등이나 난관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폭력을 불러온다. 또한 구타자들은 상호관계에 근거한 긴밀하고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Barnett & Hamberger, 1992).

폭력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남편과 아내는 비폭력적인 부부들보다 긍정적인 행동(동의, 책임을 인정하기, 미소 짓기, 부연해서 설명하기)은 더 적게 취하는 반면, 의견 불일치, 비판, 상대를 폄하하는 태도를 더 많이 취한다. 이들은 또한 한쪽의 적대적이고 화난 행동이 상대 배우자의 적대적 반응을 유발하는 경직된 상호작용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폭력적인 부부는 의사소통수준이나 문제해결 능력 면에서도 비폭력적인 부부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남편이 아내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폭력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Babcock, Waltz, Jacobson, & Gottman, 1993).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일수록 배우자 폭행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MacDonald, Holmes, & Murra, 1997). Bellavia와 Murray(2003)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성교제에서 상대의 거절에 민감하고,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에 쉽게 적대적으로 바뀐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일수록 심리적, 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Gondolf, 1988). 임상적 연구결과를 보면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으며, 자신의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자하는 욕구와 그에 대한 공포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배우자가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을 추구하게 되면 그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Murphy, Meyer, & O'Leary, 1994).

구타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

아내 폭행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고 있지만 부인은 헤어지

길 원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별거중이지만 남편은 아내와 새로운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별거하게 된 경우 등이다(Sonkin, Martin, & Walker, 1985).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게 되는 것도 별거 중이거나 이혼 중인 맥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Daly & Wilson, 1988). 따라서 최근에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었거나 심한 갈등을 겪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게 비해서 폭행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폭력적인 파트너를 떠나는 여성들은 대부분 강간, 살해 시도 혹은 살인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구타자들은 자신의 통제나 권력 하에 있었던 배우자는 자기 아이들과 함께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Coleman, 1997). 별거와 이혼 동안에 전 파트너들은 전화걸기와 같은 명백히 무해한 행동부터 시작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기, 이메일 보내기, 음성 메시지 남기기, 자녀 후견권 요구하기, 일방적 자녀만 남요구 등의 달갑지 않은 일련의 괴롭힘을 가한다. 남자는 일단 그의 파트너가 자신의 계속된 요구와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는 위협과 강압적 요구, 협박이 늘어남, 소유물을 파손하는 것, 새 파트너의 친척 혹은 친구에 대한 협박과 실제 폭행과 같은 보다 심각한 행동을 하게 된다(Walker & Meloy, 1998).

구타자의 교육수준, 직업적 위신, 수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구타 상황의 한 요소로 여겨진다. 남편이 아내보다 현실적 자원이 적을 때 그는 자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아내의 지위 때문에 위협을 느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Yllö & Bograd, 1988). 아내 폭행의 상황적 변인으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높은 실업과 낮은 수입 등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내폭행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asinski, Asdigian, Kantor, 1997).

구타의 정황은 흔히 구타자의 편에서 볼 때 술이나 다른 약물의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Hotaling & Sugarman, 1986; Steimetz, 1987). 약물과 술은 사람의 정서적 불안감을 악화시키거나 대인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약물중독은 폭력적 성향이 있는 이들에게 활성화 역할을 하거나 폭력에 대한 정당화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Hayes & Emshoff, 1993). 폭력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 내지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적당한 교육, 낮은 지위의 직업, 낮은 수입 등으로 인해 가족 부양의 책임이나 역할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의 정도는 높아지고 폭력의 가능성은 증대된다(Gelles, 1974). 스트레스와 폭력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Barnett & Fagan, 1993; Stith & Farley, 1993)은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된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 사건의 횡수가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들은 스트레스 발생 유무만으로도 심각한 폭력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타유발요인으로서 무시

아내를 폭행한 많은 남성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내를 폭행한 원인이 아내의 남편에 대한 '무시'라는 것이다(한겨레 21, 2003년 2월 2일, 제446호). 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보면, "남자들 세계는 배우나 못 배우나 아내에게 무시 당하는 것을 제일 참을 수 없어한다. 경제력이 있고 배운 여자일수록 남자를 무시한다"(한겨레 21, 2003년 2월 2일 제446호)는 것이다.

한국인의 대인 관계에서 가장 불쾌감을 유

발하는 정서는 자아관여적 정서인 '무시'이다(최상진, 이장주, 1999). 무시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화심리로 한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친밀한 상대가 자신을 무시할 때 가장 불쾌하다고 한다. 한국인이 이처럼 '무시' 당할 때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데 민감한 한국인의 관계적 자아(interdependent self) 때문이다(최상진, 이장주, 1999). 따라서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할 때 불쾌감을 느끼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내가 자신을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을 통해서라도 아내에게 남편의 '무서움'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남편의 권위와도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김지영, 2003).

무시(無視)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며(최상진, 이장주, 1999), 이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나아가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까지 함의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부장적 사회를 사는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의 통제력이 약화됨을 의미하고, 가장 친밀하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랬던 아내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무시'는 부부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야기함으로써 아내 폭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신의 역할, 즉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부양을 해야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남성적 성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자괴감 혹은 열등감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과잉반응 할 가능

성이 높다. 그 열등감과 자기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즉 상대방을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맺음말

본 고에서는 아내 구타 문제의 심각성과 그 전개과정을 인식하고 아울러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외의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고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구타에 대한 실상과 전개과정으로 실태 및 구타가 상습구타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고, 두 번째는 구타가 피해자 및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가해자들의 유형 및 심리 행동적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타 실상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발생 비율이 외국의 발생률과 크게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구타 이후에 아내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의 비율도 비슷한 양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폭력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아내 구타 전개과정 부분에서는 구타가 시작되고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심리 및 행동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다양한 일련의 행위 과정과 심리·행동적 특성들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폭력예방 혹은 결과처리에 개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다. 상습구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종속시키려는 다양

한 행동과 화해를 빙자한 위선적 행동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관련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해자의 폭력은 피해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폭력의 세대전승과 재피해화의 양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녀도 폭력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행히 연구결과 몇 가지 “보호 요인”들이 이들 아동들이 폭력적이 될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중요한 성인(어머니)의 지지를 받도록 해주거나, 높은 자존감 수준을 갖도록 한다거나, 치료와 개입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이 모든 것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O'Keefe, 1994). 따라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전략은 이들 보호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가해자의 심리 및 행동적 특징에 대한 부분에서는 폭력에 대한 동기가 남녀 불평등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배 및 통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배 및 통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의 성역할 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구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기반 한 성역할 교육 및 사회화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금까지 가정폭력과 아내구타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별로 없는 상태였으나 최근에 폭행요인에 대한 통합모형 연구(김지영, 2003)와 아내구타자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조은경, 2003)가 발표되었다. 특히 이 주제가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자면, 가정폭력의 희생자이자 동시에 성인이 되어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내구타 가해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폭력이 대물림되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김지영(2003)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구타의 한국적 상황으로서 무시라는 변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무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심리적 기제이지만 고찰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들의 다양한 신념 혹은 태도, 심리특성이 이 곳에 녹아있어 한국인의 가정폭력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 및 변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익기, 심영희, 박선미, 김혜선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재엽 (1998).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2), 115-139.
 김지영 (2003). 아내 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모형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규 (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 교류관계 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영희 (1990). 숨은 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전춘애 (1989).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7(3), 133-146.
 조은경 (2003). 아내구타자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상진, 이장주 (1999). 친밀 대인관계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자아 관여적 정서: 무시(無視).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초록집, 68-71.
 한겨레신문. 2003년 7월 6일자 '경찰관 40% 매맞는 아내 맞을 것 했을 것'
 한겨레 21. 2003년 2월 20일 제 44호, 커버스토리, 나도 아내를 때렸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1996). *Violence in the Family: A Report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Presidential Task Force on Violence and the Family.
 Babcock, J. C., Waltz, J., Jacobson, N. S., & Gottman, J. M. (1993). Power and violence: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power discrepancies and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40-50.

- Baldry, A. C. (2001). Domestic violence in Italy. In R. Summers & A. Hoffman (eds.), *Domestic Violence: Global Perspective*. (pp. 55-68).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 Baldry, A. C. (2002). From domestic violence to stalking: The infinite cycle of violence In Julian Boon & Lorraine Sheridan(Eds.) *Stalking and Psychosexual Obsession*. John Wiley & Sons, LTD.
- Barnett, O. W., & Hamberger, L. K. (1992). An assessment of maritally violent men on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Violence and Victims, 7*, 15-28.
- Barnett, O. W., Miller-Perrin, C. L., & Perrin, R. D. (1997).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London: Sage.
- Bartle, S. E., & Rosen, K. H. (1994). Individual and relationship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222-236.
- Bellavial, G., & Murray, S. (2003). Did I do that? self-esteem-related differences in reaction to romantic partner' moods. *Personal Relationships, 10(1)*, 77-95.
- Bergen, R. K. (1995). Surviving wife rape. How women define and cope with the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2*, 117-138.
- Bergen, R. K. (1996). *Wife Rape*. London: Sage.
- Bowker, L. H. (1983). Marital rape: A distinct syndrome?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4*, 347-352.
- Browne, A. (1993). Violence against women by male partners: Prevalence, outcomes, and policy im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48*, 1077-1087.
- Browne, A, & Williams, K. R. (1993). Gender, intimacy, and lethal violence: Trend from 1976-1987. *Gender & Society, 7*, 78-98.
- Caesar, P. L. (1988). Exposure to violence in families-of-origin among wife abusers and maritally non 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3*, 49-63.
- Campbell, J. C. (1989). Women's responses to sexu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0*, 335-346.
- Carden, A. D. (1994). Wife abuse and wife abuser: Review and recommend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4)*, 539-582.
- Cascardi, M., Langhinrichsen, J., & Vivian, D. (1992). Marital aggression: Impact, injury, and health correlates for husbands and wive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52*, 1178-1184.
- Chartier, B. M., Graff, L. A., & Arnold, W. J. (1986). *Male Socialization and History toward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47th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 Coleman, F. L. (1997). Stalking behavior and the cycle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420-430.
- Crowell, N. A., & Burgess, A. W. (Eds.) (1996). *Understanding Violence Against Wome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Daly, M., & Wilson, M. (1988). Evolutionary social psychology and family homicide. *Science, 24*, 519-524.
- Dibble, U. G., & Straus, M. A. (1990). Some social structures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 Family, 42, 71-80.
- Ducat, S. J. (1994). *Correlates of Gender Gap in Politics: Fear of Men's Femininity,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Homophobia*. San Francisco, CA: New College of California.
- Dutton, D. (1988). *The Domestic Assault of Women: Psychological and Criminal Justice Perspectives*. Boston, MA, Allyn & Bacon.
- Dutton, D. (1994). The origin and structure of the abusive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8, 181-191.
- Dutton, D. (1995). Trauma symptoms and PTSD-like profiles in perpetrators in intimate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 299-316.
- Dutton, D. G., Saunders, K., Starzomski, A., & Bartholomew, K. (1994). Intimacy-anger and insecure attachments as precursors of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367-1386.
- Dutton, D. G., & Starzomski, A. J. (1993). Bordering personality in perpetra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8, 327-337.
- Edleson, J. L. (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839-870.
- Eisler, R. M., Franchina, J. J., Moore, T. M., Honeycutt, H. G., & Rhatigan, P. L. (2000).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1, 30-36.
- Ferraro, K. (1988). An existential approach to battering. In G. T. Hotaling, D. Finkelhor, J. Kirkpatrick, & M. Straus(Eds), *Family abuse and its consequences: New directions in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Finkelhor, D., & Yllo, K. (1985). *License to rape: Sexual abuse of wiv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Follingstad, D. R., Brennan, A. F., Hause, E. S., Polek, D. S., & Rutledge, L. L. (1991). Factors modera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6, 81-95.
- Frieze, I. H. (1983). Investigating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marital rape. *Signs*, 8, 532-553.
- Gelles, R. J. (1974). *The Violent Home*. Beverly Hills, CA: Sage.
- Gelles, R. J., & Straus, M. R. (1989). *Intimate Violence: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Abus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Simon & Schuster.
- Gil, D. C. (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3, 637-648.
- Goldstein, J. H. (1986). Aggression and crimes of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332-354.
- Gondolf, E. W. (1988). Who are the guys? Toward a behavioral typology of batterers. *Violence and Victims*, 3, 187-204.
- Gondolf, E. W., & White, R. J. (2001). Batterer program participants who repeatedly reassaul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4), 361-380.
- Guttmacher, M. S. & Weihofen, H. (1952). *Psychiatry and Law*. (New York: Norton.).
- Haj-Yahia, M. M. (2001). The incident of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some of i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among Arab

- adolescent. *Child Abuse & Neglect*, 25, 885-907.
- Hamberger, L. K., & Hastings, J. E. (1986). Personality correlates of men who abuse their partners: A cross-validation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323-341.
- Hamberger, L. K., & Hastings, J. E. (1988). Characteristics of male spouse-abusers consistent with personality disorder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ology*, 39, 736-770.
- Hamberger, L. K., & Hastings, J. E. (1991). Personality correlates of men who batter and non-violent men. Som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6, 134-147.
- Hanneke, C. R., Shields, N. M., & McCall, G. J. (1986). Assessing the prevalence of marital rap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 350-362.
- Hart, S. D., Dutton, D. G., & Newlove, T. (1993). The prevalence of personality disorder among wife assault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7, 328-340.
- Harway, M., Hansen, M. (1993). An overview of domestic violence. In M. Hansen & M. Harway (Eds). *Battering and Family Therapy: A Feminist Perspective*. Newbury Park, CA: Sage.
- Hayes, H., & Emshoff, J. (1993). Substance abuse and family violence. In R. Hampton, T. Gullotta, G. Adams, E. Potter, & R. Weissberg (Eds.),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Treatment*. Newbury Park, CA: Sage.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London: Harper Collins.
- Hirigoyen, M. C. (2000). *Stalking the Soul: Emotional Abuse and the Erosion of Identity*. Gebundene Ausgabe: Helen Marx Books.
- Holtzworth-Munroe, A., & Stuart, G. L. (1994).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subtyp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116, 476-497.
- Hotaling, G. T., & Sugarman, D. B. (1990).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 Huesmann, I. R., Eron, L. D., Lef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20-1134.
- Jacobs, J. (1996). Psychologic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men's perception of and attitudes toward sexual harass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97/05, 117.
- Jacobson, N. S., Gottman, J. M., & Short, J. W. (1995). The distinction between Type 1 and Type 2 batterers-further considerations: Reply to Ornduff et al., (1995). Margolin et al. (1995). and Walker (1995).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272-279.
- Jasinski, J. L., Asdigian, N. L., & Kanter, G. K. (1997). Ethnic adaptation to occupational strai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6), 814-831.
- Jennings, J. L., & Murphy, C. M. (2000). Male-male dimensions of male-female battering: A New look at domestic violence.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1, 21-29.
- Johnston, L., & Ward, T. (1996). Social cognition

- nd sexual offending.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8, 55-80.
- Jones, C. (1996). Criminal harassment (or Stalking). *Juristat*, 16(12).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82-91.
- Kaplan, R., O'Neil, J. M., & Owen, S. (1993). Sexist, normative, and progressive masculinity and sexual assault: Empirical research. In J. M. O'Neil & G. Good (Chairs), *Research on Men's Sexual Assault and Constructive Gender Role Interventions*. Symposium conduc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Kaufman, G. (1992).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of battered women in family therapists' offices: Male privilege colluding with male violen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8, 233-243.
- Kelly, L. (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olbo, J. R., Blakely, E. H., & Engleman, D. (1996). Children who witness domestic violence: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281-293.
- Lane, P. A. (1989). Violent histories: bullying and criminality. In D. P. Tattum, & D. L. Lane (eds), *Bullying in Schools*(pp. 95-104). Staffordshire: Trentham Books.
- Lloyd, S. (1996). Physical aggression, distress, and everyday marital interaction. In D. Cahn & S. Lloyd (Eds.), *Family Violence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 (pp. 177-198). Thousand Oaks, CA: Sage.
- MacDnald, G., Holmes, J. G., & Murra, S. L. (1997). Self-esteem and relationship identity. *Cadadian Psychology*, 38, 45-61.
- Maiuro, R. D., Cahn, T. S., Vitaliano, P. P., Wagner, B. C., & Zegree, J. B. (1988). Anger, hostility and depression in domestically violent versus generally assaultive men nonviolent control subj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7-23.
- Mirrless-Black, C. (1999). *Domestic Violence: Finding from a New British Crime Survey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London: Home Office.
- Mones, A. G., & Panitz, P. E. (1994). Marital violence: An integrated systems approach.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3, 39-51.
- Mullender, A., & Meloy, R. (Eds.) (1994). *Children Living with Domestic Violence. Putting Men's Abuse of Women on Child Care Agenda*. London: Whiting & Birch.
- Murphy, C., Meyer, S. L., & O'Leary, K. (1994). Dependency characteristic of partner assaultive 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729-735.
- National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1993). *Project to Develop a Model Anti-Stalking Code for Stat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O'Brien, J. (1971). Violence in divorce 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92-698.
- O'Keefe, M. (1994).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Families in Society*, 75, 403-415.
- Okun, L. (1986). *Women Abuse: Facts Replacing*

- Myth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O'Neil, J. M. (1990). Assessing men's gender role conflict. In D. Moore & F. Leafgren (Eds.), *Men in Conflict: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Interventions*(pp. 23-38).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 O'Neil, J. M., Good, G. E., & Holmes, S. (1995). Fifteen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New paradigms for empirical research. In R. Levant & W. Pollack (Eds.), *The New Psychology of Men*(pp. 164-206). New York: Basic Books.
- O'Neil, J. M., Helms, B., Gable, R., David, L., & Wrightsman, L.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 Pagelow, M. D. (1984). *Family Violence*. New York: Praeger.
- Pottie-Bunge, V., & Locke, D. (Eds.) (2000). *Family Violence in Canada. A Statistical Profile*.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Statistics Canada.
- Rando, R. A., Brittan, C. S., & Pannu, R. K. (1994). Gender role conflict and college men's sexually aggressive attitudes and behavior. In J. M. O'Neil & G. E. Good (Chairs), *Research on Men's Sexual and Psychological Assault of Women*. Los Angeles, C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senbaum, A., & O'Leary, K. D. (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1*, 63-71.
- Rounds, D. (1994). *Predictors of Homosexual Intolerance on a College Campus: Identity, Intimacy,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and Gender Role Confli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onnecticut.
- Russo, N. F., & Green, B. L. (1993). Women and mental health. In F. L. Denmark & M. A. Paludi(Eds.), *Psychology of Women: A Handbook of Issues and Theories*(pp. 379-436).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Sanday, P. (1981).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rap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37*, 5-27.
- Saunders, D. G. (1992). A Typology of men who batterers women: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American Orthopsychiatry, 62*, 264-275.
- Sipe, B., & Hall, E. J. (1996). *I am Not your Victim. Anatomy of Domestic Violence*. London: Sage.
- Stark, E., & Flitcraft, A. (1988). Violence among intimates: An epidemiological review. In V. Van Hasselt, R. L. Morrisson, A. S. Bellack, & M. Hersen (Eds.), *Handbook of Family Violence* (pp. 22-43). New York: Plenum Press.
- Steinmetz, S. K. (1987).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 225-265). New York: Plenum.
- Stith, S. M., & Farley, S. C. (1993). A predictive model of male spous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8*, 183-201.

- Stith, S. M., Rosen, K. H., Middleton, K. A., Bursch, A. L. Lundeberg, K., & Carlton, R. P. (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40-654.
- Straus, M. A., &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Tjaden, P. (1997). The crime of stalking: How big is the problem?.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ovember.
- Tjaden, P., & Thoennes, N. (2000a). Prevalence and consequences of male-to-female and partner violence as measured by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6, 142-162.
- Tjaden, P., & Thoennes, N. (2000b). *Full Report of the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Vivian, D., & O'Leary, K. D. (1987). *Communication Pattern in Physically Aggressive Engaged Couples*.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National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Walker, L. (1984). *The Battered Women Syndrome*. New York: Springer.
- Walker, L., & Meloy, J. R. (1998).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In J. Reid Meloy (Ed.)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Wallace, H., & Seymour, A. (2001). Domestic violence. In G. Coleman, M. Gaboury, M. Murray, & A. Seymour(Eds.), 1999, *National Victim Assistance Academy*.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Justice.
- Westrup, D., Fremouw, W. J., Thompson, R. N., & Lewis, S. F. (1999). The psychological impact of stalking on female undergraduate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4(3), 554-557.
- Whitehurst, R. N. (1974). *Violence in Husband-wife Interaction*. NY: Haper & Row.
- Yllo, K., & Bogard, M. (Eds). (1988).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Newbury Park, CA: Sage.
- Zlotnick, C., Kohn, R., Peterson, J., & Pearlstein, T. (1998). Partner physical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1), 156-166.

Wife Battering and Its Perpetrator the process and psycho-behavioral characteristics

Jeong-In Kim

Servicetech

Si-up Kim

Kyonggi University

The nonsexual assault of adult women has been noteworthy by its huge social and personal cost to the victims, their families, and ultimately society as a whole. The purposes of this paper were to review the process of wife-assault and perpetrator's characteristics. The prevalence of marital violence, as well a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equela found to be specifically associated with wife-assault in marriage were reviewed. The cycle of violence and three stages of domestic violence were explained. And Three-types batterers that describe aggressive husband were introduced. Finally, Psycho-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wife-assaulter that included perpetrator' power, sex role conflict, personal experience, and ignoring husband by wife were reviewed.

key words : *Wife-assault, Violence, Domestic violence, Battering, Batterer, Stalking*

1차 원고접수: 2005. 11. 26

심사통과접수: 2005. 12. 19

최종원고접수: 2005. 12. 26